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제 1독서] 신명8,2-3. 14-16ㄱ

[화답송] 시편147(146-147), 12-13. 14-15. 19-20ㄱ-ㄷ(◎12ㄱ)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 하여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빛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부속가] <성체송가21-24>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망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요한6,51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제 2독서] 1코린10, 16-17

[복음] 요한6,51-58

성가	8시 미사	입당 164	봉헌 513 510	성체 166 197	파견 201
	11시 미사	입당 164	봉헌 513 510	성체 166 197	파견 201

주일 전례 봉사

구분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6월 22일)		성베드로와성바오로사도대축일(6월 29일)		성김대건안드레아사제순교자대축일(7월 6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오로(명국)	이엘리사벳(자영)	임루카(승원)	이엘리사벳(자영)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최베네딕토(환준)	최다니엘(대연)	정프란치스코(일환)	김길베르토(광호)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심헬레나(승화)	최베네딕다(수영)	김엘플레다(수연)	정글라라(영희)	전베로니카(진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북한에도 천주교회가 있나요?

이 질문은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던 나에게 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있습니다. 천주교회(성당)가 있습니다. 그 성당은 북한에 단 하나뿐인 평양 선교 구역의 <장충 성당>입니다.

북한은 분단 이후 종교를 지배 계급들이 피지배 계급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도구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도구로 이용해 왔으며 줄곧 반종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종교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1988년 이후 공인된 종교적 장소, 즉 교회와 성당, 사찰에서 교유의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1998년 개정되고 2012년 4월 재개정된 북한의 헌법 제68조는 다음과 같이 신앙의 자유에 대해 규정합니다.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고 명시하였습니다.

북한에는 조선 카톨릭교 협회, 조선 불교도 연맹,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선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등 4개 종교 단체와 이 단체들의 협의체인 ‘조선 종교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조선 카톨릭교 협회(회장 장재언 사무엘)는 1988년 6월 조선 천주교인 협회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북한 유일의 성당인 장충성당은 1988년 9월 건립됐으며, 주일마다 사제가 없는 관계로 미사는 봉헌하지 못하고 공소예절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생기기 전에도 천주교 성직자들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이 조직이 생기고 나서부터 남한의 천주교회는 북한의 천주교회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와 교류의 상대자가 생긴 셈입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서울 대교구장 영수정 추기경이 개성 공단에 가서 남북한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왔습니다. 아쉽게도 북한의 천주교회 관계자들을 만나지는 못했고 공단 내의 남한 신자들과 공단 관계자들만 만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 8월 18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한 민족의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

전 봉헌하십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교황님의 방한 행사에 북한 천주교 신자들의 참석을 조선 카톨릭 협회 관계자들을 지난 5월 중에 중국에서 만나 공식 요청했습니다.

동 서독 통일에 동 서독 교회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 큰 기여를 했듯이 교황님의 한국 방문이 남북한의 화해와 일치와 교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에페 2, 14)

오용호 세베리노신부
인천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은행동 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내 안에 ‘담다’ 그래서 ‘담아가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 보았습니다. 예상한대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체지방 증가, 지방간과 내장비만... 늘 입으로만 부지런을 떨었지, 몸은 도통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게으름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조절과 꾸준한 운동, 부지런한 생활태도가 요구된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바라보면서 문득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미사에 나오는 신자 어르신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즉 몇 가지 성사생활 중에서 이 성체성사만큼, 평소의 꾸준함을 요구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저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이 건강의 비결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침(浮沈)없이 참례하는 성체성사(미사)야 말로 지방간이 끼지 않는 건강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체성사는 그다지 어려운 얘기가 아닌, 보통 ‘먹는 것의 법칙’, ‘밥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 합니다. 그중 식사와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친교’ (일치)입니다.

식사란 것은 원래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무 하고나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버릇입니다.

식사만큼은 어느 정도 자기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먹습니다. 평소 친하지 않은 거북한 사람과의 식사는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와 가까이 식사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바로 나의 친교의 폭을 의미합니다.

내가 열 사람하고 식사할 수 있다면 나의 친교의 폭은 열 만큼인 것이고, 내가 모든 사람과 식사할 수 있다면 나의 ‘친교의 폭’은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식사 친교의 폭이 보통 ‘유유상종, 끼리끼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류층은 상류층끼리, 하류층은 하류층끼리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질의 음식을 먹습니다.

장소와 메뉴를 달리해서 먹는 이것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성체성사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계층

의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그것도 보통 음식이 아닌 예수님의 몸(성체)이라는, 똑같은 밥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회집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아름답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을 내 몸 안에 담는 것이고, 내 몸 안에 담은 그 음식의 성질을 내가 점점 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의 기운에 따라 나도 그것을 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님의 몸을 먹는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담아서’, 점차 주님을 ‘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체를 내 안에 ‘담는’ 나는 지금 얼마만큼 예수님을 ‘담아’ 있을까요?

이명찬 신부
서울 대교구 오금동 성 요셉성당 주임

요아킴/안나회 야유회 池池池

지난 6월 20일 금요일에 요아킴/안나회 주관으로 본당 신부님과 봉사자 분들을 포함해 총 62명이 Angel Island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화창해서 배를 타고 가는 길이나 섬에서 머무르는 동안 소풍 나온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산책을 하며 섬의 풍광을 돌아본 후, 준비해 온 고기와 나물 반찬 등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는 장기 자랑과 게임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갈 배를 기다리는 동안 여유 있게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한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고 오는 동안 즐겁게,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음식 장만부터 세심하게 야유회 준비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향기

어린 시절의 오래된 보물

그림치유를 공부하면서 어린 시절의 보물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물이 있었나?’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자, 생각지도 않았던 기억들이 또렷하게 펼쳐집니다.

못생기고 징징거리다고 맨날 구박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사랑받았던 보물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기억은 새로웠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오징어를 좋아했습니다. 용돈으로 오징어를 사먹다가 식중독에 걸려 고생을 한 후, 엄마는 매년 어린이날이나 생일날이 되면 오징어를 한 축 사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오징어를 장독 속에 넣어 놓고 밤마다 한 마리씩 꺼내 먹었습니다. 언니들이 먹을라치면 “내 생일 선물이야.”라며 생색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가난한 시절 엄마가 제게 사주신 오징어 한 축은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은, 친구가 신은 분홍색 가죽구두가 너무 신고 싶어 엄마에게 구두를 사달라고 엄청 졸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동네 구두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운동화도 제대로 못 신고 다니던 시절에 가죽구두는 상상할 수 없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턱없이 비싼 구두 가격에 엄마는 “조금 싼 거요, 조금 더 싼 거요.” 하며 망설이셨습니다. 구두방아저씨는 구석에서 먼지 얇은 검은색 구두를 꺼내왔습니다. 새 구두 같지 않게 찌글찌글한 그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징징거리는 저에게 “계집애가 고집도 세다.” 하시며 엄마는 저를 끌고 집으로 오셨지요.

그 검은색 신발이 제 유년시절 유일하게 가져본 가죽 신발이었습니다.(신고 싶었던 신데렐라 슈즈 같은 구두를 신지 못한 서운함으로, 저는 지금도 구두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때 신지 못한 원색의 구두들을 기웃거리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며칠 뒤, 하루가 다르게 키가 자라 맞는 옷이 없는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가셨습니다. 시장을 돌고 돌아도 저에게 맞는 아동복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들어간 편물가게에서 니트로 짠 어른 나팔바지가 제게 꼭 맞았습니다. 그 빨간 나팔바지는 꽤 비싼 듯 했는데, 며칠 전의 구두 사건이 엄마의 마음을 건드린 것인지 엄마는 망설임 없이 그 옷을 사주셨습니다.

저는 그 빨간색의 새옷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

는지 겨울이 지나 봄이 다 갈 때까지 그 빨간 바지만 입고 다녔습니다.

아! 아줌마가 된 지금도 제가 빨간색에 집착하는 것은, 어린 시절 빨간 바지를 통해 느꼈던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던 것이 아닐까요.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찬찬히 어린 시절의 보물들을 떠올려 보니, 그 곁에는 항상 엄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늘 무뎠고 무서웠던 엄마만을 기억했는데, 어린 나를 품에 안고 “어이구! 우리 불쌍한 막내”라고 하며 저를 안아 주셨던 엄마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코앞에 둔 나이에 돌볼 구하고 ‘엄마’가 그리웁습니다.

윤미숙 베로니카
그림에니어그램 연구소 소장



행복하여라
나무처럼 풀처럼 물처럼
당신 안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

글_정지원 루치아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성경산책

신명기 : 하느님, 이스라엘의 쇠신을 요청하시다

오경의 마지막 책은 [탈출기+레위기+민수기]에 나오는 법과 규정들을 다시 한 번 다루고 있기에 그 제목을 라틴어로 'Deuteronomium(둘째 법)' 이라 합니다.(예를 들어 탈출 20장의 십계명이 신명 5장에서 다시 다루어집니다)

그에 따라 우리말 제목은 신명기(申命記)가 되었습니다. 문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신명기는 매우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 내용은 '모세의 연설' (5-28장)인데, 그 연설의 한 가운데에 '신명기 법전' (12,1-26,15)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인 1-4장과 뒷부분인 29-30장 역시 독립된 모세의 연설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인 31-34장은 여호수아의 임명, 모세의 노래와 축복,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보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 벧 프오르 맞은쪽 골짜기에 묻혔는데, 그가 묻힌 곳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신명기는 전합니다.

신명기 법전은 앞선 법적 내용을 다시 한 번 다루고 있고, 법전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의 연설은 앞선 이야기들을 회고하면서 그 신학적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이집트 탈출과 시나이 계약에서부터 요르단 동편까지의 과거를 되짚으며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있어서 신명기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토라(=율법)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11,26-28은 그 충실함에 따라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또는 저주를 받을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신명기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열왕 22-23장이 전하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중앙집권적 정치-종교 개혁으로,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고백을 중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명기 신학은 '하나' 를 강조합니다.

한 하느님, 하나인 성전, 하나인 율법, 하나인 경신례, 하나인 백성...(오늘날 유대교 신자들은 아침저녁으로

'셔마 이스라엘' 이라는 기도를 바치는데, 이 기도는 신명 6,4-9; 11,13-21; 민수 15,37-41로 이루어졌으며, 하느님의 유일하심을 잊지 않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신학은(신명기를 넘어) 여호수아기부터 열왕기까지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의 연구가들은 그 책들을 '신명기계 역사서' 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신명기 신학은 예언 문학과 시편, 그리고 지혜 문학에 이르기까지 구약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신명기 전체를 계약 체결의 형식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앞선 시나이 계약이 신명기 이후 전례적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의 갱신이 단지 옛 계약에 머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계약은 과거에 머무름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 우리는 백성의 끊임없는 쇠신을 요청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최승정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현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6월22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해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김중화	정데레사(해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해경)
	연	계영실	이카타리나(영보)
	연	오제성	허라우렌시오가족
	연	조일성	황마르코가족
	생	조마오로수녀님	김데레사
	생	박마리아(영자)	찬미성가대
	생	안나회원	안나회
	생	원안젤라(은규)	부모
	생	신마태오	조바오로/분다
	생	조베드로(찬구)	조데레사
	생	김영호	조데레사
6월24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6월26일 목	생	이요한(규호)	익명
	생	서데레사(춘애)	이엘리사벳
	생	박스텔라(요진)	이엘리사벳
6월27일 금	생	고요한	황안나
6월28일 토	연	모든연옥영혼들	성령기도회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0	198	-	288
헌금	\$551	\$961	-	\$1,512

< 교무금 > \$5,640

명광식(11-12/2013, 1-4) 정기환(5-8) 팽현팔(6-7)
이재우(6) 변귀태(6) 조진행(6-9) 한재구(4-6)
배데레사(1-6) 조승구(6-7) 고영남(1-6) 정진희(6)
이선희(6) 김용식(6) 이성재(5-6) 양우선(5-6)
김관수(5-6) 김수연(6) 심재구(6) 이창용(1-6)

< 성소후원금 > \$40

정진희(6) 이선희(6) 김용식(6)

< Bishop's Appeal > \$150

변귀태(6) 조진행(1-12)

< 감사헌금 >

이재우 \$400 조승구\$50

~~~~ 오늘 간식은 양우선 요한/지기재 벨라뎃다 맥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예비자 교리 신청

입교식 : 7월 6일 교중미사 중  
예비자 분들이나 예비자를 인도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주보성인 축일 기념 걷기대회

본당의 주보성인이신 성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축일을  
맞아 걷기대회를 시행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7월 5일(토) 꾸리아 월례회 후  
장소 : Redwood Regional Park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구역장회의 : 6월 29일 연도 후 107호실

◆ 빈첸시오 홀리스 식사 제공 봉사

일시 : 6월 26일(목) 오후 4시  
\* 봉사해 주실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싸인업  
양식에 기재해 주십시오.

◆ 사진동호회 모임

일시 : 6월 29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주제 : 인터넷에 사진 올리기

◆ 대건산악회 정기 산행 안내

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문의 : 510-847-3014

◆ 대건장학회 신청 접수(친교실)

신청일시 : 6월 8일 ~ 7월 27일  
장학금 수여식 : 8월 17일  
문의 : 허석진 프란치스코 510-406-0588  
oakcc.scholarship@gmail.com

◆ 주일학교 여름 캠프

- High School Camp(incoming 10th to 13th graders)  
: July 27 ~ July 30(costs \$180)
- Junior High Camp(incoming 6th to 9th graders)  
: July 30 ~ August 1(costs \$145)
- \* \$20 sibling discount  
문의 : campdirectors@gmail.com
- \* 주일학교 캠프 기금마련을 위하여 7월 6일 교중미사  
후 카레(\$5)를 판매합니다.

◆ 제 20 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9일(토) 오전 8:30 - 오후 6:00  
주제 :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록21:5)

강사 : 차동엽 로베르도 신부님  
장소 :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한인 천주교회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접수 : 천종욱 다니엘 510-684-7207  
\* 단체 버스로 가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여 주십시오.  
(버스비 : \$10, 환불 불가)

◆ 월드컵 시청 안내

오늘 22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에서 한국 대 알제리  
월드컵전을 함께 시청할 예정입니다.

◆ 연도 안내

다음 주 29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에서 윤순의 사비나  
자매님의 오빠인 윤광의 바오로 형제님의 1주기 연도가  
있습니다.

◆ 6월 24일은 요한 세례자 축일입니다. 영명축일을  
맞으신 이완수, 박종영, 강신호, 이건호, 정석준,  
양우선 형제님, 축하합니다. 늘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무  
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4-2015)**

- 6월 말까지 : \$285
- 그 이후 : \$300 \* 개강일 : 9월 6일